

로버트 바노이 (Robert Vannoy), 구약 역사, 강의 7

창세기 1장의 문학적 틀, 메소포타미아 창조 이야기 -

에누마 엘리쉬

문학적 틀 가설: Vannoy의 반대

어제 시간이 끝날 무렵, 우리는 창세기 1장의 날과 관련하여 종종 틀 가설이라고 불리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견해의 아이디어는 창세기 1장의 날이 실제 날이 아니라 문학적인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의 저자는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신 방법을 제시하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한 장치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토론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몇 가지 반대 의견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언급했듯이, 이 견해를 타당한 견해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복음주의 학자들이 점점 더 옹호하는 견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만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창세기 1장의 본문 자체에는 날들이 하나님의 창조 활동의 실제 기간이나 순서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문학적 형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힌트를 주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장에 그런 힌트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장으로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 역사적 설명으로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역사적 설명이 아니라 단순히 문학적 형식이라고 인정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다른 많은 이야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역사적 서사로 보는가? 대신에 그것은 실제로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일종의 문학적 형식,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단지 문학적 형식이라는 증거가 본문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활동의 실제 기간과 순서에 대한 설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고려 사항입니다. 내 생각에 만약 당신이 문학적 장치에 대해 그런 종류의 해석을 허용하는 원칙을 채택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다른 많은 곳에 적용할 수 있는 문을 열게 되고 머지않아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실제 역사는 거의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둘째,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핵심 반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활동과 그 후의 안식이 인간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가운데 따라야 하는 패턴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그것은 하나님이 여섯 기간 동안 창조 작업을 하시고 한 기간에 안식하셨을 때 그분의 활동에 현실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활동에 현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기본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이 실제로 말하는 것은 인간이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패턴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고안한 문학 형식에 기초하여 자신을 패턴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 견해에 따르면 6-1 패턴의 기원은 하나님의 창조 활동 자체의 현실이 아니라, 6+1 시퀀스에서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대한 관념은 인간이 고안한 문학 작품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태.

다시 말해서, 이것이 하는 일은 인간의 활동과 안식의 패턴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활동과 안식에 대한 현실적 기반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인간이 하나님을 모방하는 근거를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신 일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의 자료를 구조화하면서 저자가 행한 일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여섯 가지 일을 하셨다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쉬었고, 사람은 그것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본받아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인간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는 기초로부터 미묘한 변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서 그 장의 저자와 그가 사용한 문학적 형식을 창조하는 현실의 변화입니다. 나에게 그것은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음, 그는 그것이 일곱째 날까지 절정에 이르도록 3개씩 두 세트의 유사점으로 구조화되어

안식일의 특별한 의미를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것이 구조화되어 안식일의 특별한 의미를 지적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문헌 7페이지의 두 번째 항목에 로버트 뉴먼(Robert Newman) 박사의 최근 기사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록에 있는 사건들이 연대순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의 대답은 ‘예’입니다. 그 내용은 *The Genesis Debate* 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 1986년경에 출판된 것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되는 관점은 여러 항목 아래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이 순서 문제를 논의하는 내용을 더 읽고 싶다면 해당 기사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뉴먼의 결론은 이런 패턴이 있을 수도 있고, 그 패턴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 패턴의 발견이 반드시 현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문학적 장치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창세기 1장에서 그런 종류의 패턴을 찾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단순히 신성한 활동의 실제 순서를 제거하는 문학적 장치로 이해하는 데 반대합니다. 나는 그가 거기에 타당한 요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활동의 순서를 이렇게 정하셨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순서는 일곱째 날에 절정에 달하는 이 평행성을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그 비유의 과정이 그렇게 강하다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셋째 날과 다섯째

날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본문에서 더 많이 읽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합법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그러나 당신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든 그것이 반드시 6일 관점에 현실성이 없는 순수한 문학적 틀 가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A. 창세기 1:1-2:3의 우주 창조 7. 창세기 1장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전달되었습니까?

7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자 A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1부터 2:3까지에서 우주의 창조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7. "창세기 1장의 지식은 어떻게 전달되었나요?" 문제는 지구가 나이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견해입니다. 그건 어때? 그것은 종종 주장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문제는 그것이 너무 많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논쟁한다면, 지구와 모든 현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2초 전에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x년 동안 살았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그 모든 것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몇 분 전에 창조되었지만 실제로는 5분 전에는 여기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논쟁은 말도 안되는 일로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실제로 여기에 있다는 것 외에는 실제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

글쎄, 이 모든 데이터는 일반적인 과정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화석 기록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렇게 오랜 기간이 있었다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 거기에 넣어졌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자리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White의 책, *The Warfare of Science and Christian* 에서 읽어 준 역사가가 사용한 것과 동일한 주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모두 신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이집트 역사의 초기에는 본격적인 문명이 점진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 종류의 주장은 정말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모든 과학적 조사를 파괴할 정도로 거의 무한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기독교 비판자들이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이기 위해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 존재했던 이러한 지층에 반영되는 듯한 역사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주 사용되는 세월의 흔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것이 강력한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것은 모든 것에 대한 불확실성과 하나님의 은밀한 속임수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1장의 지식은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1세대로 가기 전

창세기 1장의 지식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기 전에 성경 기록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나는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의 일부 부분에 저자를 통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글로 기록하여 우리를 위해 보존했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저자는 환상을 받았는데, 특히 예언서에서 선지자들이 환상을 가지고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른 작가들은 우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조사를 하고 자신이 쓰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 자신이 쓰는 책의 구성에 활용합니다.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 서문 (누가복음 1:1-4)에서 역사 연구를 통해 자신의 많은 자료를 기록했음을 나타냅니다. 열왕기상하의 저자도 열왕기의 자료를 구성하면서 활용한 자료를 자주 언급하기 때문에 이는 분명히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입수하든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방식이냐가 아니라, 작가들이 제작한 것에 오류가 없도록 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사업을 감독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기록한 내용에 오류가 없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1장에 이르면, 그 장에 포함된 지식이 어떻게 모세에게 전해졌는가 하는 것은 물론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은 대답하는 것보다 물어보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그 지식이 모세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내용이 없습니다. 나는 그것이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고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이며, 참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거기에 없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일을 말씀하셨느냐? 모세가 환상에서 그것들을 받고 그가 본 것을 기록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자료가 어떻게 모세에게 왔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제 가상의 제안을 해보겠다. 나는 당신이 이미 이에 대해 Fine gan을 읽었고 아마도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이 다신교적 요소를 제거하고 그런 종류의 것들이 변경된 바빌론의 창조 기록을 적용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다면,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종류의 전통을 활용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참된 부분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나는 단지 이론적으로 말하는 것 뿐이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령께서 성경 기록에 영감을 주셨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자적 영감에 대해 말할 때, 성경의 모든 말씀은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진리입니다.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법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 가정적인 일로 돌아가서, 모세가 창조에 관해 몇 가지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성령께서 그가 물질을 형성하는 방식과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를 사용하고 인도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는 많지 않습니다.

바빌로니아 기원 - 범바빌로니아 학파 접근      바빌로니아 기원에 대한 이러한 주장을 논의해 봅시다. 1875년, 런던 대영 박물관의 조지 애덤 스미스(George Adam Smith)라는 남자가 영국 신문인 데일리 텔레그래프(Daily Telegraph)에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에서 그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창조 이야기를 기술하는 약 20개의 서판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Smith는 나중에 *The Chaldean Account of Genesis* 라는 책을 썼는데, 이는 성경과 고고학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연구와 연구의 전체 영역의 시작이었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창조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와 어떻게 다릅니까? 때는 1875년이었습니다. 1902년에 Fredrich Delitzsch라는 사람은 성경에 대해 매우 낮은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아버지 프란츠 델리치(Franz Delitzsch)는 구약성서에 대한 주요 주석을 썼고 성경에 대해 매우 높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1902년에 *바벨과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일련의 강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참고문헌 7페이지에 있습니다. 1902년에 독일어로 출판되었고, 1903년에 영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으며, 보고 싶으시다면 도서관에 사본이 있습니다. 그는 범바빌로니아 학파로 알려지게 된 구약 접근 방식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구약성경에 접근하는 이 학파의 생각은 성경의 세계관과 바벨론의 세계관이 매우 유사하며, 성경의 세계관은 바빌론에 의존하고 바빌론의 세계관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입니다.

Delitzsch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와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모두 바빌로니아 이야기에서 파생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그 주장의

일부는 바빌로니아 이야기가 더 일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원전 1400년경이며, 이 바빌로니아 이야기는 그보다 약 400~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는 성서의 창조와 홍수 기록이 바빌로니아 이야기를 각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바벨과 성경 책* 이 아니라 여기 여러분의 참고 문헌 7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다른 책의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Delitzsch 아래의 두 번째 항목은 페이지 아래쪽 3/4 지점에 있는 독일어 제목입니다. 영어로 는 그가 1920년에 출판한 2권짜리 작품인 "Great Deception"을 의미합니다.

참고문헌의 8페이지 맨 위에는 EG Kraeling이 쓴 *The Old Testament Since the Reformation*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 Kraeling은 Delitzsch가 158페이지에 쓴 책 *The Great Deception* 에서 인용했습니다. 이것은 Friedrich Delitzsch의 구약성서 해석에 대해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러분이 접하게 될 가장 급진적인 비평가 중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성서는 거짓 묘사의 진정한 미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의 변경, 개정 및 전치의 성경적 연대기를 포함하여 잘못되고 믿을 수 없으며 신뢰할 수 없는 모든 종류의 진실한 뒤죽박죽의 속임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시대착오적인 부분과 오래된 이야기, 전설, 민화의 끊임없는 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컨대, 의도적이거나 의도하지 않은 속임수로 가득 찬 책입니다. 따라서 책 제목은 *The Great Deception* 입니다. 이 책은 구약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성서와 그에 포함된 모든 책은 언어학적 아름다움과 고고학 정보로 가득 차 있으며, 그 결함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문서로서의 가치를 유지하지만,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낮고 흐릿한 출처입니다. 창세기 첫 장부터 역대기 마지막 장까지의 선전 문서입니다 .” 그는 구약성서에 대해 별로 높은 견해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그 중 상당 부분은 많은 자료가 바빌로니아 자료에서 파생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부분이 벨하우젠의 관점을 따르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대표되는 후기 자료 등입니다. 에

누마 엘리쉬

아버지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실하고 훌륭한 성경학자였던 아버지 프란츠가 이렇게 급진적인 견해를 가진 아들로 거듭난 것은 놀라운 일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흥미로울 것 같아요 . 이 바빌로니아 기원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 봅시다. 바빌로니아의 창조 이야기는 에누마 엘리쉬(Enuma Elish)에 의해 알려져 있습니다. E numa와 Elish라는 두 단어는 “높을 때”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작품의 연대를 기원전 1700~2000년으로 추정합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텍스트의 연대는 기원전 1000년경이므로 기원전 17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텍스트는 없습니다. 이 역사 기간 동안의 맥락과 설정을 찾는 문서 전체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역사적 암시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오래된 문서는 기원전 1000년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원이 기원전 1700~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성경 자료와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구약성서의 처음 다섯 권의 내용을 모세가 담당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모세는 1400년대 초반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출애굽 날짜와 모세와 관련된 날짜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출애굽의 초기 연대는 1400년대 중반이고 후기 연대는 1290년경이므로 모세의 연대는 대략 1400년에서 1200년 사이에 위치합니다. 어쨌든 2000년에서 1700년 사이의 상당히 늦은 것이므로, 그 구성에 관한 한 에누마 엘리쉬가 창세기 1장보다 오래되었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렉산더 하이델(Alexander Heidel)이라는 사람이 쓴 에누마 엘리쉬(Enuma Elish)에 대한 매우 철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참고문헌에 있는 7페이지의 마지막 항목입니다. 그 책의 제목은 *바빌로니아 창세기(The Babylonian Genesis)* 입니다. 하이델은 에누마

엘리쉬에 대해 매우 주의 깊게 분석 하고 에누마 엘리쉬를 창세기 창조 기록과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합니다. 그가 주목하는 것 중 하나는 에누마 엘리쉬의 대상이고, 그는 이야기의 대상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는 먼저, 그것은 기본적으로 전혀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에누마 엘리쉬가 기록된 7개의 판이 있는데 그 중 아주 작은 부분만이 창조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창조 이야기가 주된 내용은 아닙니다. 당신은 에누마 엘리쉬(Enuma Elish)의 주인공 인 바벨 도시의 최고 신인 마르둑(Marduk) 에 대해 길게 설명했습니다 . 그의 탄생, 성장에 대한 긴 설명이 있으며 문서는 창조 이야기 자체라기보다는 Marduk을 바빌론의 신으로 지지하는 변증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다음에는 거기서부터 픽업해야겠습니다.

폴 슈나이더(Paul Schneider)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거친 편집: Ted Hildebrandt

Rachel Ashley의 최종 편집,

Ted Hildebrandt 의 내레이션